

해외 한국어 보급기관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

대한민국 소극장열전 17일 전주 개최

정부가 외국 한국어 교육 지원체계를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한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외교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 실행방안'을 보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한국어교육은 문체부가 '세종학당', 교육부가 '한국교육원', 외교부 '한글학교'를 추진해왔다.

문체부는 "이번 실행방안은 교원 연수, 교재 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중심으로 개편하고, 스마트러닝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외국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교육원 30곳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강좌를 '한글교육원 세종학당'으로 일괄 지정한다.

'한국교육원 세종학당'은 세종학당 교재를 사용할 수 있고, 한국교육원의 신청이 있으면 문체부에서 세종학당 교원 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글학교는 민간자생단체의 특성을 고려

교원 연수·교재 개발 등 연계 기능 중심으로 개편

해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세종학당으로 전환을 원하면 심사를 거쳐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관별로 시행 중인 교원의 현지연수는 상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연수는 공동 시행을 통해 세계 한국어교육자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용과 외국인용 대상에 따라 문체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한국어 교재 개발은 문체부(국립국어원)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 내에 학계, 현장교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인 '한국어 교재편찬위원회(가칭)'를 운영한다.

문체부는 "현지 학습자 수요가 높은 한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를 개발하고, 또 국립국어원에서 기존에 개발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모형과 연계해 교재 개발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인터넷 환경이 무선통신망 중심으로 확충되고 모바일 사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 현지 맞춤형 스마트러닝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세종학당 학습자 등에서 스마트폰용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PC) 등을 통한 상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국어교육 앱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속도가 열악한 국가에서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학당이나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외장하드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 한국어 학습자와 교원이 온라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누리-세종학당(세종학당 누리집)이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의 허브사이트

로 개편·확장한다.

브랜드 통합 이후 세종학당을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대표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원 파견 확대 ▲표준모델 세종학당 ▲세종문화아카데미 ▲개발학당 운영 여건 개선 등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해외 한국어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문체부와 교육·외교·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한국어 해외 확산을 위한 협의체'(가칭)를 구성, 오는 11월부터 반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교재 개발 등 기능 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을 이관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세종학당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는 물론, 해외에서 양질의 한국어 교육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세종학당이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각 지역 연극의 대중성 및 예술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극축제가 전주에서 열린다.

극단명태가 주최하는 2016 대한민국소극장열전이 오는 17일까지 아하아트홀, 창작소극장, 기억의 광장, 오거리 문화의 광장에서 펼쳐진다.

소극장 열전에는 전주를 비롯 대구, 부산, 광주, 구미, 대전, 춘천, 안산지역 등의 대표연극이 초대됐다.

이번에 소극장 열전 무대는 극단 명태/전주의(부치지 못한 편지), 극단 정이로운 천하극단 결판/안산의(페스트), (사)문화프로덕션 도모/춘천의(처우), (사)문화창작집단(공터다)/구미의(아름답지 않다), 극단 놀자/대전의(별망), 극단 푸른연극마을/광주(안티고네), 극단 한울림/대구(뮤지컬 55일), 극단 어니언 킴/부산의(초대 바다에게 말을 걸다), 극단 골목길의(세일즈맨의 죽음), 연극집단 반의(집을 떠나서), 극단 자전거냥다의(개) 등 12작품으로 채워진다.

2016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의 최경성 예술감독은 "본 축제는 연극예술의 기반이 되는 소극장의 활성화와 함께 연극인들의 창작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각 도시의 관객들에게는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공연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함으로써 다양한 공연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이나 예매는 274-7114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야성의 화가 최북 이야기

무주, 오늘 전통문화의 집서 고대 정창권 교수 초청 강연

무주군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에서 고려대학교 정창권 교수(한국박물관협회 지문위원, 서울시 교육청 고전인문 아카데미 강사) 초청 강연을 실시한다.

2016 무주군 명사·전문가 초청, happy 365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강연은 "야성의 화가 최북이 그린 조선이야기"라는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정창권 교수는 △조선의 3대 화가로 꼽히는 한 쪽 눈의 괴짜 화가 최북의 일화를 비롯해 △그림 속에 담긴 조선의 삶과 그림화를 청중들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샌드 아티스트 자니의 공연도 마련된다. 자니는 음악과 모래로 최북의 일대기를 표현하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 문화관광과 김윤섭 문화예술담당은 "최북의 고장 무주가 최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최북의 삶과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조선의 역사와 삶, 그리고 무주를 되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은 조선 후기 화가(1720~미상) 최북의 고향으로 무주군을 이를 기념하고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 2012년 최북미술관을 개관·운영 중이다. 최북미술관은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괴석도와 산수도 등 최북 진품 4점을 비롯해 영인본 등 112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무주군의 명사·전문가 초청 Happy 365 문화행사는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군이 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최북의 고장 무주군서 듣는다

"야성의 화가 최북이 그린 조선이야기" 연말까지 권영민 교수와 영화 감독 정재은,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김소희 선수 등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2015 KBS 방영분 가장 빛나는 행복.

무형유산한마당 '전통의 멋과 흥' 제작

14일부터 3주 목요일 KBS 방영

국립무형유산원의 <2016년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한마당 '전통의 멋과 흥'> 공연이 방송으로 제작되어 오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KBS 1TV를 통해 총3회 방영된다.

국립무형유산원과 KBS 전주방송총국은 2014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중 일부를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하고 있다.

오는 14일 방송되는 <전통의 미, 미래의 희망> 제1부는, 전통은 곧 미래의 자산이자·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개막 특별공연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과 제57호 경기민요의 명인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21일 방영될 <명인오마주>는 탄생

/정해은 기자

100주년을 맞이하는 작고 보유자들의 예술혼에 경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오마주'라 이름 짓고 그들의 회고 무대를 갖는다.

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허박동진과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보유자 허채계간의 기록영상을 통해 명인의 모습을 되새기고, 후학들의 회고를 통해 명인을 기리고자 기획되었다.

28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차세대 전승자인 이수자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뽐내는 무대 <2016 이수자전편>이 방송된다. 젊은 탈꾼들의 흥겨운 춤과 익살스러운 재간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인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채롭고 풍성한 무형유산 공연 관람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형유산을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청소년연극제 17일까지

(사)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하는 20회 전북청소년연극제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무대는 오는 17일까지 오후 1시와 6시에 각각 펼쳐진다.

전북도내 10개 고등학교가 참가하는 이번 연극제에서는 청소년들의 꿈과 고민을 비롯 학교 문제와 갈등, 가족의 해체, 인간 소외 등 인생의 축소판을 다양한 주제와 시각으로 보여준다.

연극제는 지난 12일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연극반 산목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무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13일에는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자연의(방황하는 별들 2016)과 전주고등학교 연꽃의(6호살)을, 14일에는 김제지평선고등학교 아파시오나토의(모든 학생은 불쌍하다)와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IN의(아름다운 사인)을, 15일에는 군산동고등학교 나르사의(귀화)와 까멜레온의(피수꾼)을, 16일에는 순창고등학교 화물림의(30만원의 기적)과 전주여자고등학교 SINCE1986의(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를, 17일에는 군산여자고등학교 미림의(나하유수를 각기 선보인다).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 정두영 회장은 "청소년연극제가 경선으로 치루다 보니 수상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여 작품에 대한 열정과 창작에 대한 노력의 시간들이 결코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며 "조금은 서툰데 미흡하다 할지라도 솔직하고 담담하게 본인들의 표현을 시도하는 작품이 많이 나오길 너무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극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팀은 제20회 전국청소년연극제의 출전권을 얻게 된다.

공연문의는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 277-7440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13일)

<p>▷ 쥐띠 46년생: 문서운이 들어오니 계약이 좋다 60년생: 다치거나 아플 수 있다. 72년생: 의적으로는 일이 잘 풀리나 내적으로는 공허한 마음이 가득하니 마음을 잘 다스려라. 84년생: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p>	<p>▷ 소띠 49년생: 상대편과 내편을 잘 구슬려야 할 것이다. 61년생: 명예를 비리는 일은 이로우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73년생: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85년생: 사소한 말 한마디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p>	<p>▷ 호랑이띠 50년생: 원형은 심리라. 사고수가 따른다. 62년생: 놀라운 일이 발생하니 마음을 다스려라. 7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86년생: 친구나 동기간과 뜻이 맞지 않으니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p>	<p>▷ 토끼띠 51년생: 사소한 실수가 타인에게는 큰 피해가 된다. 63년생: 금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 발생. 75년생: 뜻하지 않은 일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 조심하라. 87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p>
<p>▷ 용띠 52년생: 잠시 늘릴만 할 일이 발생하니 동요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시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라. 64년생: 도의주는 사람들이 도체에 있다. 76년생: 함께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써라. 88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p>	<p>▷ 뱀띠 53년생: 조용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인 때가 있다. 65년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77년생: 이성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89년생: 편법은 통하지 않으니 정도를 지키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라.</p>	<p>▷ 말띠 54년생: 사람과 만나면 즐거운 일이 생기는 때다. 66년생: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줘라. 좋은 일이 생긴다. 78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면 잘 해결되는 운이다. 90년생: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마음 상할만한 일이 생긴다.</p>	<p>▷ 양띠 55년생: 대립하지 말고 피하는것이 상책이다. 6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 79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매사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91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난관이 생기는 운이니 지나친 욕심은 삼가고 분수에 맞게 진행할 것.</p>
<p>▷ 원숭이띠 56년생: 무리한 추진은 삼가고 때를 기다려라. 68년생: 비뻔한 꿈의 이득은 얻기 어려우니 욕심을 버려라. 80년생: 처음에는 여긋나나 후반에는 같은 마음이 된다. 92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p>	<p>▷ 닭띠 57년생: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69년생: 뒷사람의 덕이 출만하니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격. 81년생: 여성은 남성의 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작은 성과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운.</p>	<p>▷ 개띠 46년생: 크게 움직이면 금전 손실이 많이 따른다. 58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보게 되고, 먼저 얻으면 후에 잃게 된다. 70년생: 과도한 의욕을 앞세워 독단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82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만한 일이 발생.</p>	<p>▷ 돼지띠 47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59년생: 문서를 주고 받기에는 좋은 때이다. 71년생: 서운함 감정이 든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83년생: 작은것에 욕심 부리다 큰것을 잃을 수 있다.</p>